

“코로나로 힘든 시기 태극기가 큰 힘 됐으면”

서생현 제일의류수선 대표 멈추지 않는 '나눔 정신'

광복절 앞두고 사비 털어 국가유공자 등에 600장 전달 34년 전부터 청소년 선도 코로나 방역·마스크 나눔 등

총장로서 44년동안 제일의류수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생현(70)씨의 '나눔 정신'은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았다.

서씨는 최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600장을 사비로 구입해 담양 군민에게 나눠줬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독거노인, 경찰서, 군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312개 마을회관 등이다.

서씨는 “최근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쏟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봤다. 태극기에는 힘든 시기에 우리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코로나19, 폭염 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요즘, 자라는 청소년들부터 소외된 어르신들까지 새 태극기로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담양지구 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서씨는 34년 전인 1987년부터 법사랑위원으로서 나눔활동을 해 왔다. 소년원 청소년과 1대 1 결연을

맺고 선도, 학교폭력 예방 등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그는 차츰 활동 범위를 넓혀나갔다.

서씨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고향인 담양군을 찾아 방역 봉사를 시작했다. 보호복을 입고 약제 살포기를 든 채 소년원, 터미널, 초·중·고등학교, 공공시설 등 곳곳을 찾아갔다. 때로는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때로는 홀로 꾸준히 방역 봉사를 했으며, 지난 3월까지 그 횟수가 100회를 넘겼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지난해 초에는 마스크 나눔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원단을 구입해 직접 만들어 나누기도 했다.

서씨는 처음엔 마스크를 500장씩 만들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군부대 등에 나눠줬으나, 차츰 만드는 양이 많아져 많게는 6000장씩 만들기도 했다. 담양



군 터미널에서 마스크 6000장을 나눔 적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방역 수칙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서씨는 “마스크 만드려고 밤늦게까지 수선집에 불을 켜고 재봉틀을 돌렸다. 원단을 모양에 맞게 자르는 작업부터 전부 스스로 했는데, 하루종일 재봉을 하고 있자니 목에 담이 올 지경이었다”며 웃었다.

“총장로서 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사랑 덕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제 나눔활동은 그간 받은 사랑을 지역에 돌려주는 것 뿐입니다.”

한편 서씨는 양장 1급 기능사, 패션 디자인산업기사 등 3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의상과 의류 리폼’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 뜨	05:49	달 뜨	08:12
해 지	19:26	달 지	21:20

선크림 바르세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광주	구름많음	23/32	보성	흐림	22/30
목포	흐림	24/32	순천	구름많음	24/33
여수	흐림	26/30	영광	구름많음	22/33
나주	흐림	22/32	진도	구름많음	23/31
완도	흐림	23/30	전주	구름많음	23/32
구례	구름많음	22/32	군산	구름많음	23/32
강진	흐림	22/31	남원	구름많음	22/32
해남	흐림	22/31	축산도	구름많음	25/30
장성	구름많음	21/3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1.0~2.0	1.0~2.0
	면바다(남)	1.0~2.0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서)	0.5~1.5	1.0~2.0
	면바다(동)	1.0~2.0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19	04:10
		21:24	16:13
여수		04:39	10:48
		16:48	23:17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경고	매우높음	좋음

◇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24/32	24/31	23/28
15(일)	16(월)	17(화)
22/31	22/30	22/30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장학금 6750만원 전달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최영관)는 1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총 675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

이날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2021 박사과정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식'에서는 김국현(전남대 교육학과), 권승돈(전남대 화학과), 김한성(전남대 생명화학공학과), 임상현(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김사라(조선대 전기공학과)씨 등 박사과정 장학생 5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전달했다.

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선행 실적이 뚜렷한 고등학교 과정 장학생 53명에게는 1인당 50원씩 2650만원을,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장학생 32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지난 1983년부터 박사과정 장학생 325명, 행정·외무·기술·고시 장학생 54명,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온 중·고등학교 장학생, 다문화 가정의 장학생 등 2236명을 선발, 지금까지 모두 22억 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K-POP가수 알렉사 디자인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 위촉

글로벌 아티스트 알렉사가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광주시는 10일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AI 콘셉트로는 최초로 데뷔한 K-POP가수 알렉사를 명예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으로 국내 지비레이블 소속 가수로 활동 중인 알렉사는 2020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포커스상, 2020년 제4회 소리바다 베스트 케이뮤직 어워드 신한류 베스트 아티스트상 등을 받았다. 2019년 데뷔곡 'Bomb'으로 아이튠즈 K팝 차트 6개국(체코·노르웨이 등) TOP 5에 올랐던 알렉사는 세계적 작곡가 군단 'Dsign Music'이 참여한 곡 'Revolution'으로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알렉사는 디지털혁명 속 사람과 기술 간의 무한 확장성을 강조하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주제와 부합해 시너지가 기대된다.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위촉 영상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d-Revolution(디-레볼루션)'을 주제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등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

전남대병원 “이해충돌방지 실천” 다짐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갖고 부패없는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전남대병원 감사실 주관으로 최근 병원 백년홀에서 열린 이번 서약식에는 안영근 병원장·박용현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익명 독지가, 합평군에 장학금 2000만원 기탁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가 합평군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합평군에 따르면 최근 익명을 요구한 한 독지가가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써달라며 합평군 인재 양성기금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익명의 독지가는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인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

금을 기탁한다”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기탁하고 싶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자님의 진심이 누가 되지 않도록 기탁금을 지역인재 육성의 마중물로 소중히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 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 모집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방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

- 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1-003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부음
- ▲김신중(구례군의회 전문위원)씨 별세=발인 11일(수) 오전 7시 40분 구례병원장례식장 특2호 실 061-783-4344.